

다문화 시민성의 위계구조에 따른 형평교수 방법의 구조화

김 미 현

서울교육대학교 글로벌교육연구소

I. 서론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국민 국가 중심의 한국 사회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등의 증가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다문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처럼 다변화된 국제정서와 한국 사회의 변화양상을 볼 때, 한국 사회에서도 다문화적 분쟁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다문화 시민성 개념의 함양을 통하여 실천에 이를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시민성 교육은 21세기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전 세계의 국가에서 인종종족문화언어종교적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Banks, 2009: 232). 기존의 시민성 교육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자유에서 참정권으로 정치적 참여가 확대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 사회의 시민성 교육도 법적인 의무와 책임, 선거권의 행사를 통한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시민성 개념은 다문화 사회의 요구와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다문화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불충분하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집단들을 한국 사회에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리와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이들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문화 시민성 교육에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시민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다문화 교육 방법으로 소수 집단의 요구와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방법인 형평교수 전략을 시민성 교육에 활용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시민성 형성 교과로서 다문화 교육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를 선정하여 시민성 수준별 형평교수 방법을 구조화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시민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각 수준별로 어떠한 특징과 위계구조를 가지는가? 기존의 시민성 개념과 비교하여 다문화 시민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탐색한다. 또한 각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과 수준별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성 개념을 정립하고 다문화 시민성 교육을 통한 변환 시민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둘째, 다문화 시민성 수준에 따른 형평교수 전략은 무엇인가? 형평교수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알아

보고 다문화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본다. 또한 학생들의 시민성 수준을 분류하고 수준별 특징을 고려하여 위계적인 전략을 세워본다.

셋째, 형평교수 전략을 활용하여 다문화 형평교수 방법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시민성의 수준과 형평교수 전략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형평교수 방법을 구조화해 본다. 구조화의 사전적 정의는 부분적 요소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¹⁾ 본 연구에서 구조화방법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성을 탐구하여 실천적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시민성의 위계구조와 형평교수 전략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시민성 수준별 형평교수 방법으로 구조화 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시민성의 의미와 개념화

기존 시민성 개념은 다양화된 집단의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국민 국가 중심의 시민성 개념은 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집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즉, 지구촌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변화된 시민성 개념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변환적이며 비판적인 개념을 포함한 시민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적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Banks, 2008a: 129).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시민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고 교육적 형평성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Marshall의 시민성의 개념

Marshall(1964)은 시민성의 개념을 시민적 시민성(civil), 정치적 시민성(political), 사회적 시민성(social)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 구분은 오랜 기간 동안 시민성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Blumer & Rees, 1996; Banks, 2008a: 129 재인용). 그러나 국민국가 중심의 시민성 개념으로 다양화 된 집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동화주의 시민성 개념

동화주의는 국민 국가에서 강한 인종적 경계·애착연합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주변화되고 배제된 민족인종 집단에게 국가의 사회·경제·정치 제도 속에서 평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그들이 주류 사회와 제도에 보다 충분히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특정한 관심사에 덜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적 이슈나 우선순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주의 시민성 개념은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억압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심각한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민성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 네이버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자료 제공.

3) 다문화 시민성의 개념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arshall의 시민성 개념과 동화주의 시민성 개념은 한계에 부딪힌다. Marshall의 시민성 개념은 개인의 자유보장과, 참정권, 복지국가에의 요구로 대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성 개념은 국민 국가의 틀 안에서의 개인과 정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동화주의 시민성 개념은 주류집단 중심의 편협한 개념으로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말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시민성 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반영하고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문화 공동체 및 국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문화 모두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요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시민성 개념은 ‘문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문화 시민성의 핵심이다. 즉, 국가 속에서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공동체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편, 국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다문화 시민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 시민성의 위계수준

Banks는 21세기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시민성 개념은 변화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Banks, 2008a: 135). 그는 시민성 교육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와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anks, 2008a: 129). 즉,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시민성 개념의 정립과 시민성 교육의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의 시민성을 참여의 정도에 따라 위계성을 구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높은 수준의 시민성을 획득하기 위한 지식과 가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Banks가 제시한 시민성 수준은 다음과 같다(Banks, 2008a: 137).

<표II-1> Banks의 시민성 수준

시민성 수준	특징
법적 시민성 수준	·가장 피상적인 수준의 시민성 ·해당 국민 국가의 법적 구성원으로서의 의미와 권리를 지니나, 유의미한 어떤 방법으로도 정치적 체제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가장 낮은 수준
최소 시민성 수준	·법적 시민성을 지니며 관례적으로 입후보자와 쟁점에 대한 지방과 국가적인 선거에 투표를 행사하는 수준
능동 시민성 수준	·법적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투표행위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거나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수준 ·항의 시위에 참여하거나 관례적 쟁점과 개혁에 관한 공적인 연설을 실천 ·현존하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도전적인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며 현존 질서 내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수준
변환 시민성 수준	·능동 시민성의 개념을 넘어 도덕적 원리나 이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과 관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민성 수준 ·그들의 행동이 현존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법률을 해체하고 위협하는 것일 지라도 사회적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봄

시민성의 위계구조는 학생들의 더 높은 수준의 시민성 획득을 돕기 위하여 수준별로 개념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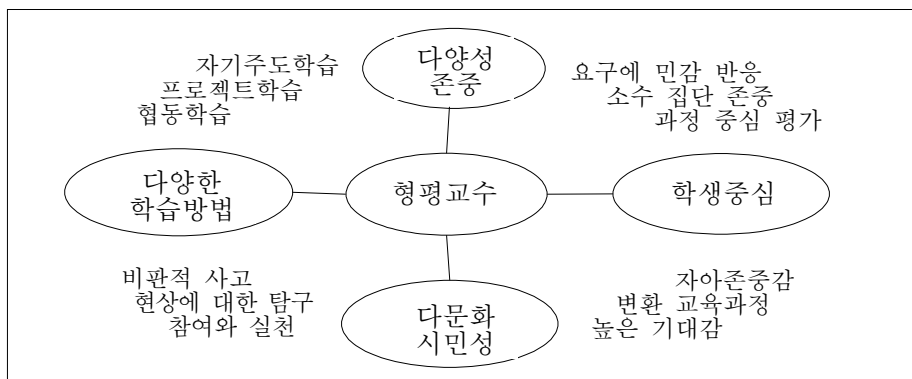
각 수준들은 기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서로 중첩되고 상호 연관된다. 시민성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각 수준에 적합한 전략을 활용하는 데 유용하다. 법적 시민성 - 최소 시민성 - 능동 시민성 - 변환 시민성의 수준으로 점차 심화된 시민성을 의미한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인 다문화 시민성의 함양은 결국 가장 높은 수준의 변환 시민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Banks, 2008a: 137). 이와 같은 시민성의 위계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학생들의 시민성 수준을 분류하고, 수준에 적합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성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시민성 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문화 시민성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변환 시민성 교육이다. Banks의 시민성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변환 시민성 수준은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Banks(2008a: 135)는 소수 집단의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며, 구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변환 시민성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능동 시민성과 구분되는 변환 시민성의 특징은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같은 원리와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존하는 질서와 관습을 위반하더라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Banks, 2008a: 135). 따라서 변환 시민성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개혁, 더 나아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3. 다문화 시민성 함양과 형평교수법

형평교수(Equity Pedagogy)란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교수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학습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협의의 교수법만이 아닌 교수전략 및 교실환경, 더 나아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활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교구조를 개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형평교수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다문화 시민성의 특징인 실천적인 사회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능, 지식, 태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수전략이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동학습, 갈등해결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연관지어 활용가능하며 비판적 사고력 증진, 탐구능력향상, 사회적 참여와 실천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 형평교수는 교수학습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학교 교육 현장과 환경, 교육과정 내용에 관련하여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I-1> 형평교수 관련 개념



형평교수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교사들은 형평교수와 관련된 전략들을 알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지

식적 측면과 성찰적 측면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전제조건을 갖추었을 때, 형평교수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문화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문화적으로 능력있는 교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며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고, 적절한 교수 기법과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기와 다른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의미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장인실, 2008: 299). 이처럼 형평교수는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형평교수가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구성 및 생산과정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특히 다문화 시민성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환 시민성 수준은 지식의 구성적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관습, 법률이 고정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도록 해준다. 또한 높은 차원의 도덕적 원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맥락을 중시하는 역동적인 교수법이다. 과정과 배경, 관계 등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소수자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수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현상이나 사건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맥락을 발견하여 살아있는 지식을 구성해 낸다. 이처럼 맥락을 중시하고 관련성을 탐구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전략을 모색하여 실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협동학습,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구체화된 교수전략으로 활용가능한 실천적 교수법이다. 특히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되어 실제적인 사회 참여와 실천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시민성의 최종 단계인 변환 시민성 달성을 위해 형평교수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즉 학교차원, 교실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을 넘어선 실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형평교수의 중요한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형평교수는 실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시민성 교육에 적합하다. 즉,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교육과정과 학교 변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교수법이다.

Ⅲ. 시민성 위계별 형평교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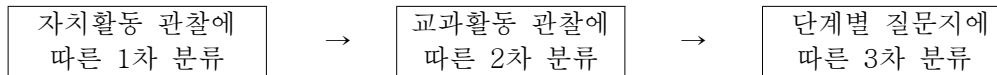
1. 시민성 수준 분류

본 연구는 시민성 위계별 형평교수 방법의 구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 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형평교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 분류 질문지는 학생의 '참여'와 '문제해결'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Banks는 참여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시민성 수준을 구분하였다(Banks, 2008a: 137).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시민성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실천하는 것으로 참여의 의미와 연결된다. 또한 시민으로서 참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과 유형에 따라 시민성 수준을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나 학급에 따라 자치활동 영역의 시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과행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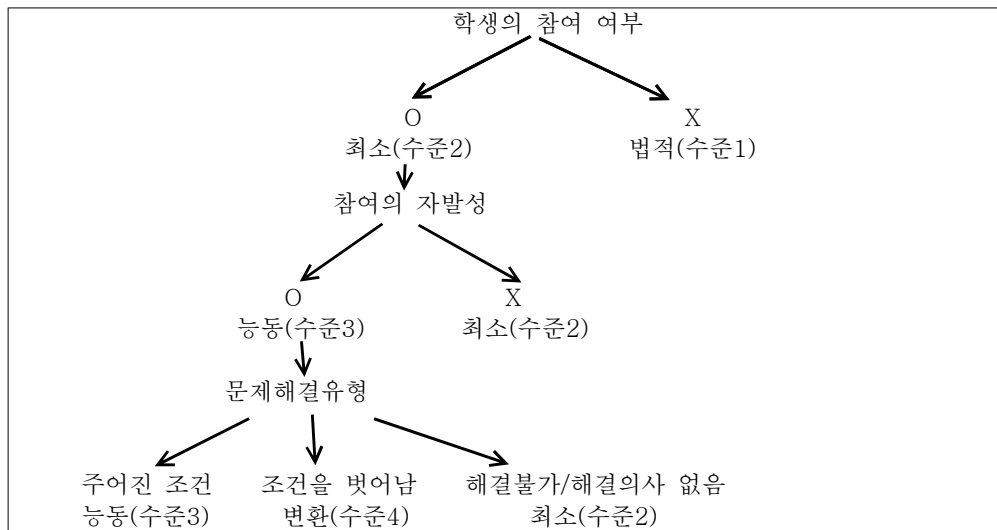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자치활동으로 학생들의 시민성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2차 기준으로 교과활동에서의 학생의 참여도를 관찰하여 시민성 수준을 분류해 본다. 또한 1차, 2차 기준에 따른 분류가 어려운 경우 단계별 질문지를 활용하여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단계별 질문지의 내용은 자치활동 영역의 활동 내용 및 지도 중점을 반영하여 의사표현, 문제해결, 역할분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표Ⅲ-1> 시민성 분류 절차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여부는 법적 시민성 수준과 최소 시민성 수준을 구분 짓는 특징이다. 이때의 '참여'는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 모두를 인정하도록 한다. 다음 수준인 최소 시민성과 능동 시민성을 구분하는 특징은 참여의 자발성이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는 최소 시민성 수준에서 능동 시민성 수준으로 발달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문제해결' 항목은 능동 시민성 수준을 특징짓는 기준이다. 문제 해결을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는 능동 시민성 수준으로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 해결하는 경우는 변환 시민성 수준으로 분류한다. 조건을 벗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행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관습의 틀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Ⅲ-1> 학생의 참여정도와 문제해결유형에 따른 시민성



<표Ⅲ-2> 시민성 수준에 따른 특징

단계	영역	관찰내용	○ 그렇다	× 아니다
1단계	자치활동	학급의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표결행위에 참여한다.	법적, 능동, 변환	최소
	교과활동	교사의 발문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응답을 할 수 있다.	법적, 능동, 변환	최소
2단계	자치활동	의사표현을 위한 발언권을 얻는다.	능동, 변환	최소, 법적
	교과활동	수업활동 중 질문이나 발표를 위한 발언권을 획득한다.	능동, 변환	최소, 법적
3단계	자치활동	주어진 학급 규칙 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능동	최소, 법적, 변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변환	최소, 법적, 능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의사가 없다.	최소, 법적	능동, 변환
	교과활동	과제에 제시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능동	최소, 법적, 변환
		과제에 제시된 조건을 벗어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변환	최소, 법적, 능동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의사가 없다.	최소, 법적	능동, 변환

2. 분류 수준별 특징

시민성 분류 절차에 따라 서울 노원구의 G초등학교 4학년 1학급 30명(남학생 18명, 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시민성 수준 분류를 실시하였다. 2010년 3월 ~ 2011년 2월까지 학급 자치활동 및 교과활동을 관찰하여 시민성 수준을 분류하였으며 분류 결과가 불명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 단계별 질문지에 따른 수준 분류를 실시하였다.

<표III-3> 시민성 분류 결과

1차 분류 결과

시민성 수준	남	여	계
법적	3		3
최소	6	7	13
능동	5	4	9
변환	2		2
3명 미분류			

→

2차 분류 결과

시민성 수준	남	여	계
법적	3		3
최소	<u>7</u>	7	<u>14</u>
능동	5	4	9
변환	2		2
남(1)→최소 시민성 2명 미분류			

→

3차 분류 결과

시민성 수준	남	여	계
법적	3		3
최소	7	7	14
능동	5	<u>5</u>	<u>10</u>
변환	<u>3</u>		<u>3</u>
남(1)→변환 시민성 여(1)→ <u>능동</u> 시민성 분류완료			

1) 법적 시민성

법적 시민성은 학교에 입학하고 학급을 배정받으면서 특정한 노력 없이도 저절로 형성되는 시민성 수준이다. 법적 의미와 권리는 지니나 유의미한 방법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수준이다. 법적 시민성 수준의 학생은 학급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학생이나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할 때조차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법적 시민성 수준은 형성된 것으로 분류한다.

2) 최소 시민성

형식적인 수준의 선거에 투표를 행사하는 수준의 시민성을 의미한다. 학교나 학급을 배정받으면서 저절로 형성 되는 법적 시민성을 넘어 투표행위나 수업활동에 소극적인 수준의 참여를 보인다. 자발적인 수준의 능동적인 표현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 자치활동에서의 표결행위, 학급 임원선거 등에 참여한다. 교과활동에서는 자발적으로 발언권을 획득하여 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하나 교사의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능동 시민성

형식적인 투표행위를 넘어 학급활동이나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 수준이다. 자치활동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학교나 학급에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교과활동에서도 자발적으로 발언권을 획득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학급 규칙이나 학교 규칙을 넘어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4) 변환 시민성

능동 시민성의 개념을 넘어 도덕적 원리나 이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내의 규칙과 규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단발머리규제 등의 학교 규칙을 철폐하거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거부하는 종교거부운동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학생의 행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이러한 목표가 개인의 인권 존중, 문화적 정체성, 형평성 추구 등의 기본적인 원리를 실현하는 것일 때, 규율을 넘어서는 실천적 행동이 변환 시민성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민성 수준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규칙과 규율을 강조하는 학교 및 학급환경에서는 능동 시민성 수준을 최종적인 수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학교상황은 능동 시민성 수준의 학생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며 규칙과 규율을 넘어서는 실천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포용력 있는 자세와 열린 사고방식으로의 변환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의 혼란과 학급통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실천 논리로써 변환 시민성 수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3. 시민성 위계별 형평교수 전략

형평교수는 교사들에게 학습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 형평교수가 이루어지는 교실의 학생들은 지식의 암기에 초점을 두는 대신, 지식을 생성하고, 해석하고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는

것을 배운다. 지식구성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아이디어와 관점을 연계하고 판단과 평가를 한다.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정답을 찾으려 하는 대신, 다중적 해결방안과 관점들을 산출하도록 격려가 주어진다. 학생들은 또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다른 문제, 쟁점, 개념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탐구한다(Banks, 2009: 148-149).

이러한 형평교수 전략을 구체화시킨 전략으로 합동구연, 편견해소 학습, 의사결정학습,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전략의 활용은 특정 수준에서의 고정적인 것이 아닌 학생의 관심과 흥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1) 법적 시민성

가장 낮은 수준의 형평교수 전략으로 '합동구연' 방법을 활용한다.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발표자들이 협동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합동구연의 경우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업전략이 될 수 있다. 합동구연 방법은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도록 활용된 수업 방법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하와이 원주민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의 향상을 위하여 교사가 하와이의 발표놀이인 '이야기하기(talk story)'와 유사한 참여형태를 수업에 도입한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학습형태를 활용함으로써 법적 시민성 수준의 학생들의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2) 최소 시민성

이 수준에서는 문제해결학습을 사용한다. 이 수준은 능동 시민성으로의 발달을 모색하는 수준이다. 능동 시민성 수준의 중요한 특징은 문제해결과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소 시민성 수준의 학생들에게 문제해결학습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켰을 때, 이 수준 학생들이 능동 시민성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 능동 시민성 수준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가능한 단계이다. 따라서 학생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으로써 적극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적극적인 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3) 능동 시민성

이 수준에서는 편견해소 학습전략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수업 전략은 역사적 편견 및 역사 지식 구성에 관하여 가르치기이다. 이 수준의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과 실천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 지식에 대한 도전과 관습의 틀을 깨려는 행동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편견 해소학습을 통하여 편견을 해소하고 기존의 인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인식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법과 관습을 넘어선 실천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4) 변환 시민성

이 수준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실천적 행동에 이르게 한다. 이 수준의 수업전략은 선행 수준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다. 의사결정학습 또는 문제해결학습을 통한 학습결과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

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또한 편견해소학습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게 된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주어진 관습과 규칙의 범위를 넘어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각 수준의 활동은 기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상호 연관되어 활용될 있다. 이 수준의 활동은 학급 내의 혹은 학교 내의 수행 활동으로 한정짓지 않도록 하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민원 제기, 언론기관에의 의견 제시 등의 사회적 실천행동을 행할 수 있다.

IV. 사회과 다문화 학습의 형평교수 방법 구조화

1. 사회과 형평교수 방법의 구성방향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쳐 2007 개정 교육과정에도 다문화 교육이 정식으로 삽입되었다. 그러나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다문화 교육이 실시됨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모형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김용산·김정호, 2009: 66).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중심 교과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평교수 방법을 사회과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화해 보도록 한다.

1) 주요 내용 요소

형평교수의 주요 내용 요소는 주제 영역과 시민성 자질 영역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주제 영역은 각 수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 요소들을 의미하며 다문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시민성 자질 영역은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자질을 의미한다. 제시된 내용 요소들은 중심으로 각 수준에서 꼭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수준에서 주어진 내용 요소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문화’와 ‘다양성’과 같은 다문화의 핵심 주제들과 문제해결, 실천 등의 시민적 자질들은 전 수준에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지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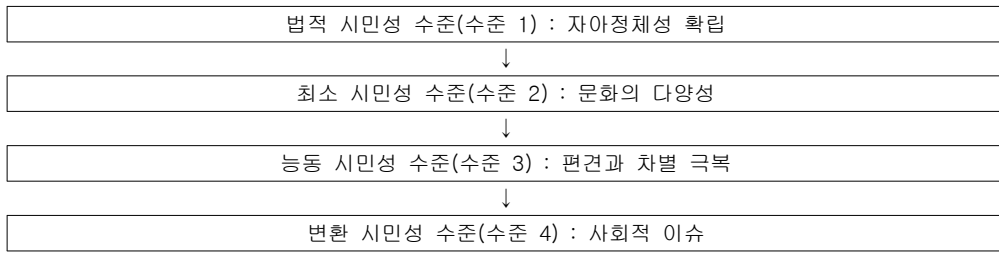
<표IV-1> 형평교수의 주요 내용 요소

주제 영역 : 문화, 다양성, 정체성, 편견, 차별, 사회적 이슈
시민성 자질 영역 :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실천능력

2) 내용 요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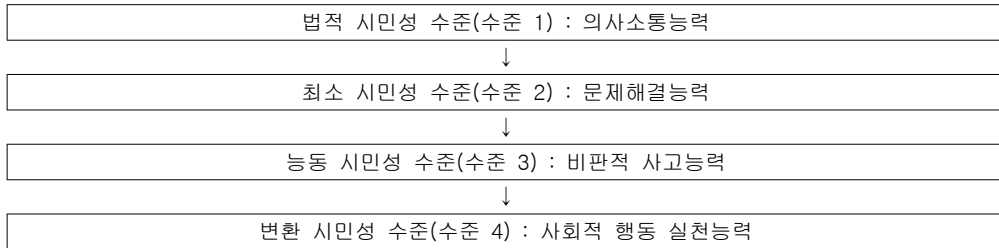
가) 주제 영역

<표IV-2> 주제 영역의 내용 요소 조직



나) 시민성 자질 영역

<표IV-3> 시민성 자질 영역의 내용 요소 조직



3) 형평교수의 목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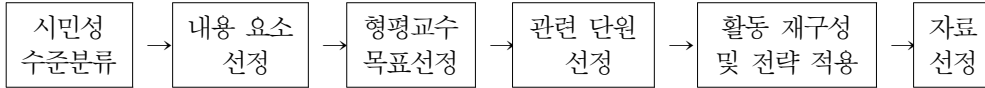
사회과 교육과정 성격과 목표를 통해 탐구능력과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참여능력을 사회과 목표의 핵심개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정보화세계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며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다문화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적 자질을 반영하여 형평교수 수업의 목표를 선정하였다. 수준별 목표를 선정하는 것은 특정 목표에 치중되거나 소홀해 지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수준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형평교수 목표의 균형적 달성을 이루기 위함이다.

<표IV-4> 수준별 형평교수 목표

법적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 •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한다.
최소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 맥락과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능동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른다. • 권위를 무조건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변환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단능력을 기른다. • 민주적 가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2. 수업설계 절차

<표IV-5> 수업 설계 절차



1) 시민성 수준 분류

시민성 분류 기준에 의하여 학생들의 시민성을 분류한다. 또한 분류된 수준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해당 수준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업전략을 분명히 할 수 있다.

2) 내용 요소 선정

다문화적 성격을 고려하여 추출된 내용 요소를 반영한다. 내용 요소의 조직은 수준별로 위계화 되어 나타난다. 내용 요소의 선정은 사회과 학습 내용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각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형평교수 목표 선정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를 고려하여 추출된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여 형평교수 목표를 선정한다. 형평교수 목표는 수준별로 위계화 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각 수준을 고려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선정한다.

4) 관련 단위 선정

관련 단위의 선정은 교수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 요소를 담고 있는 단위들을 선정하여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과 교육과정 상의 운영을 위하여 교과서 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하되, 완전 재구성 또는 부분적인 재구성으로 활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5학년 사회과의 경우 역사영역에만 편중된 내용구성과 사실 전달 위주의 내용 서술로 전면 재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4학년 2학기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의 권리 단원은 다문화 중심단원으로 모든 수준에 적용하여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활용가능하다.

5) 활동 재구성 및 전략적용

수준별 형평교수 전략을 반영하여 활동을 재구성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앞서 논의된 형평교수의 다양한 전략들 중 내용 요소와 목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6) 자료선정

자료선정은 수준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다. 자료제작에 있어 편견,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 계층에게는 익숙한 자료가 특정 계층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다. 여러 형태나 유형의 자료

를 제작하여 자료품을 구성해 두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다.

3. 위계별 형평교수 방법 구조화

1) 법적 시민성의 형성

가장 낮은 단계의 시민성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수업의 차시 구성 및 시간 배분 역시 기존의 수업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핵심 전략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서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동구연’ 방법을 사용한다. ‘합동구연’ 방법은 학생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기 때문에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업 자료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시되는 자료에 편향된 시각이 담겨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표IV-6> 법적 시민성 수준 수업 설계

수업 설계 절차	해당내용
시민성 수준 분류	법적 시민성 수준(수준 1)
내용 요소 선정	·주제요소 : 자아정체성 확립 ·시민성 자질 : 의사소통하기
형평교수 목표선정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 ·합동구연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한다.
관련 단원 선정	3-1 고장의 자연과 우리의 생활 / 4-1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전략적용	합동구연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야기 나누기
자료활용	·멀티미디어자료 : 생긴 모습이나 생활방식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 ·적용상의 유의점 - 세계 여러 곳의 자연환경, 생활모습 제시 - 미국, 유럽 중심의 자료 지양/ 동남아 지역에 대한 편견 주의

2) 최소 시민성의 성립

형식적 수준의 참여는 이루어지나 참여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다음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수준에서는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문제해결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IV-7> 최소 시민성 수준 수업 설계

수업 설계 절차	해당내용
시민성 수준 분류	최소 시민성 수준(수준 2)
내용 요소 선정	·주제요소 : 문화의 다양성 ·시민적 자질 : 문제해결하기
형평교수 목표선정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맥락과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관련 단원 선정	4-2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의 권리
전략적용	·블록타임 시간 운영

	·수업 전개 방향 - 문제상황파악 :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 활동방안 : 소수자들의 차별사례나 인권 침해 사례 찾기 - 해결방안모색 :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찾기 - 소수자의 의미 모색 : 외국에 나가면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 상대성과 다양성에 대한 열린 시각 모색
자료활용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등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 - 동남아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의,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 소개

3) 능동 시민성의 발달

이 수준은 주어진 법과 관습 내에서 참여가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절대적이라고 인식되는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르도록 한다. 핵심 전략으로는 개념 중심의 역사적 편견해소학습을 활용한다.

<표IV-8> 최소 시민성 수준 수업 설계

수업 설계 절차	해당내용
시민성 수준 분류	능동 시민성 수준(수준 3)
내용 요소 선정	·주제요소 : 편견과 차별 극복 ·시민적 자질 : 비판적 사고
형평교수 목표선정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다. ·권위에 도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관련 단원 선정	5-1 하나 된 겨레
전략적용	·시간 운영 상 자율성 부여 ·수업 전개 방향 - 개념 중심의 역사적 편견해소학습의 적용 - 역사적 서술에 대한 의문 가지기, 역사적 기록의 한계와 편향성 찾기
자료활용	·역사적 기록, 사료, 유물 등의 자료 -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담긴 자료 활용 - 자료의 다양성 확보

4) 변환 시민성의 가능성

이 수준에서는 사회적 이슈나 편견을 담은 문제 상황을 학생 스스로 선정하게 하여 프로젝트학습을 수행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이 때 실천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표IV-9> 최소 시민성 수준 수업 설계

수업 설계 절차	해당내용
----------	------

시민성 수준	변환 시민성 수준(수준 4)
내용 요소 선정	·주제요소 : 사회적 이슈 ·시민적 자질 : 사회적 행동 실천하기
형평교수 목표선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단능력을 기른다. ·민주적 가치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관련 단원 선정	6-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활동구성 및 전략적 용	·시간 운영상의 자율성 부여 ·수업 전개 방향 : 프로젝트활동 ·주제 재구성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른 주제 선정. 사회적 편견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 선정. - 소수자의 인권과 차별 문제에 대한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실천행동 정하기 → 실천하기 - 모든 학급 구성원이 동일한 실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 스스로 구성된 과정에 따른 행동실천이 이루어지도록 격려.
자료활용	·TV, 신문 등 시사자료 : 무비판적 수용 경계 → 언론 매체 별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파악.

V. 결론

본 연구는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시민성의 수준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학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준별 형평교수 전략이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문화 시민성 교육이 학생의 시민성 수준과 요구, 문화적 배경 등에 이해 없이 행해질 경우, 주류 집단 중심의 획일적 시민성 교육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 맞는 시민성 교육을 위해 다문화 시민성 위계구조를 적용하여 시민성 수준을 분류하고 형평교수를 전략을 시민성 수준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Banks가 제시한 다문화 시민성 개념을 밝히고 시민성 수준의 위계구조와 수준별 특징을 탐색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접근 방법 중 형평교수 전략을 적용하여 시민성 위계별 형평교수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성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참여의 정도'와 '문제해결유형'을 선정하였다. 분류 방법은 자치활동 영역과 교과활동 영역을 선정하여 시민성 수준을 분류하도록 하며, 분류가 어려운 경우 단계별 질문지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수준별 특징을 밝히고 시민성 위계별 형평교수 전략을 수립하였다. 수준별 수업 전략으로는 합동구연, 편견해소학습,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사회과 다문화학습의 형평교수 수업을 구조화하였다. 사회과 다문화 학습의 의미와 필요성을 밝히고, 형평교수의 내용 요소를 주제 영역과 시민성 자질 영역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시민성 수준별로 위계화하여 조직하였다. 주제 영역은 '문화'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 요소를 구성하여 다문화 교육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시민성 자질 영역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사회 참여 능력 등의 다문화 시민적 자질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또한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형평교수의 목표는 선정하였다. 그리고 형평교수의 내용과 목표를 적용한 수업활용방안으로는 학급

단위, 학년 단위, 시민성 수준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민성 수준에 따른 수업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수업방법으로 구조화하였다.

이처럼 획일화된 시민성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시민성 수준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다문화 시민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관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심화된 시민성 수준을 획득하도록 하여, 시민성 수준 및 형평교수 방법의 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의 형평교수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과정 및 학교현장에서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급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앞으로 다문화 시민성 교육과 형평교수 전략의 활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 김용신, 김정호(2009). 사회과 다문화 수업을 위한 CAT모형의 구안. *사회과교육*, 48(2). 65-77.
- 장인실(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 281-305.
- Banks, J. A. (2008a).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Vol. 37. No. 3. 129-139.
- Banks, J. A. (2008c).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E. 모경환 외(역)(2008). *다문화 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anks, J. A. (2009).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김용신 외(역)(2009). *다문화시민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Bulmer, M. & Rees, A. M. (1996). *Citizenship today :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 H. Marshall*. London: UCL Press.
- Marshall, T.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of T. H. Marshall*. Westport, CT: Greenwood.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가정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법무부(2011). *2011년 외국인 통계 결과*. 법무부 자료.